

한일역사교육교류회한일역사교육교류회한일역사교육교류회한일역사교육교류회한일역사교육교류회한일역사교육교류회한일역사교육교류회

第8回 韓日歷史教育交流會

-지리산심포지움개최요강-

한일역사교육교류회한일역사교육교류회한일역사교육교류회한일역사교육교류회한일역사교육교류회한일역사교육교류회한일역사교육교류회

2001년 8월 21일(화)~22일(수)



지리산 자연학습원

진주역사교사모임

<지역교재로 한일교류를 배운다> -학생과 배우는 「사면석담」의 수수께끼-

아이자와 노부오 (愛沢伸雄, 千葉県立長狭高校)

1. 학생이 주역인 사회과 수업을 지향하며

내가 근무하는 학교는 房総반도의 최남단 鴨川市(인구 3만)에 있는 천명 가까운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전일제 보통고등학교로 전체학생의 9할 정도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학교이다. 나는 올 봄에 정기이동으로 본교에 부임하였고 본래 전공과목은 세계사지만 지금은 1학년 「현대사회」(주 4시간)과목을 4학급(162명)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다.

올해 초 학생들이 중학교 사회과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특징적이었던 것은, 반수정도가 사회과가 싫다고 대답하였고 그 중에서도 역사과목이 싫다고 한 학생들이 많았다는 점이며, 사회과를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들의 경우도 역사항목을 외우는 식의 암기 그 자체가 좋다던가 또는 시험성적이 좋았기 때문이란 이유에 불과했다. 전에 있었던 학교에서부터 매년 앙케이트조사를 실시해왔지만 매해마다 사회과에 열증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는 학생들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역에 있는 많은 중학교에서의 사회과 학습이 여전히 고교시험에 맞춘 암기중심의 수업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난 사회과에 심하게 열증을 느끼는 학생들이 고교생활의 스타트점인 1학년단계에서, 사회과인 「현대사회」로부터 사회과학습의 즐거움을 알고 배움의 의의를 제대로 몸에 익힐 수 있었으면 하고 원했다.

본 보고내용은 본교 학생들이 가까이 있는 지역교재로부터 과제테마를 설정하고, 19시간의 조사학습을 거쳐 수업 정리단계에서 글 쓰는 능력을 몸에 익히기 위한 소논문 작성에 참여한 수업실천의 일부 내용이다. 이번 수업실천의 목표로는 첫째, 「조사학습」을 중심으로 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가 도서실에서 주체적으로 학습과제를 찾아내어 그 과제를 탐구해가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기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둘째는, 이번에 가르치는 교과단원이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인간과 문화」 문화교류와 국제이해였기에, 생활주변에 있는 것들로부터 국제교류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에 남아있는 역사적 자료를 학습함으로써 국제교류에 적합한 지역인식을 육성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테마를 탐구하는 조사학습에서부터 소논문 작성에 이르기까지

-19시간의 수업구성 및 소논문 지도

제1학기 중간고사 이후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인간과 문화』 문화교류와 국제이해」를 가르치게 되었다. 마침 2002년은 「한일월드컵축구경기」라는 국제적 이벤트를 한일공동으로 개최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일 국제교류를 축으로 지역으로부터의 국제화 위상을 탐구하는 것을 수업목표로 하였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중학교역사교과서문제는 아시아세계의 일원으로서의 일본의 위상 및 한일교류의 역사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난 <현재>를 배우게되는 「현대사회」 과목에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가면서, 한일관계를 「가깝기에 <가까운>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본에 사는 인간으로서 어떤 문화교류와 국제이해가 필요한가? 등의 문제

를 역사적 사실에서부터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고자 했다.

구체적인 수업진행에 있어서 우선 수업교재를 검토가 있었다. 과제테마를 설정하고 추구해 가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는 역사적인 교재를 찾아보고자 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테마설정에도 있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생들이 소논문 작성에 이르러 조사학습 자세를 반영해서 스스로 학습 달성도가 느껴질 수 있는 교재로 삼정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이전부터 나 자신이 조사 연구해 오고 있는 지역문화재를 교재화 하는 것으로 정했다.

즉 千葉県館山市에는 大巖院이란 浄土宗 서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석탑 사면에 4종류의 문자로 『南無阿彌陀仏』이 새겨진 「名号石塔」이란 문화재가 있다. 이 석탑은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점들이 많고 사료도 거의 없는 수수께끼에 가득차 있으나, 학생들이 여러 가지 고찰을 하는 과정 안에서 주체적으로 조사학습을 해가며 바람직한 한일국제교류의 위상을 생각해가는 데는 아주 적합한 교재라는 판단을 했다.

<수업구성>

시간	내용
1	「진정한 국제화란? (문화교류와 국제이해)」에 대해 생각한다 - 2002년 월드컵과 한일교류 지역에 있는 교류를 전하는 역사적 유산을 소개한다 프린트 「사면석탑」을 보면서 석탑에 관해 추정해본다
2	「나는 사면석탑을 이렇게 생각한다」 제출 학급 전원의 의견 「수수께끼 석탑을 이렇게 본다」 보고 및 발표, 의견교환
3	도서실에서 조사학습
4-5	테마설정준비 「사면석탑의 수수께끼 -테마를 정한다」 참고자료 프린트배부, 공동조사
6	(1) 연표작성 「사면석탑설립 당시의 시대연표를 만든다」 제출 (2) 불교관계 「불교 및 시대적 역사사항을 조사한다」 제출
7	HR교실 - 「테마설정」 예비조사- 제출한 프린트 및 학습내용 체크
8-9	도서실조사학습(b) 「테마설정」 및 조사사항 검토 그리고 서적자료 확인
10	愛澤자작 VTR시청 「한글 사면석탑의 수수께끼」
11-1 3	도서실 조사학습(c) 조사연구 愛澤자작 雄譽上人 연표
14	「조사연구화일」 배부
15	HR교실 - 「조사연구화일」 체크 및 참고자료 愛澤논문 배부
16-1 8	소논문작성 작성상의 주의 -전용원고 2매(2400자) 배부
19	소논문 및 「조사연구화일」 제출 (기말고사시간)

州山下大綱村大巖院檀蓮社雄營(花押刻字)」라는 刻字에 주목함으로써, 석탑에 새겨진 명호 및 讚偈(經文)으로부터 당시의 평화에 대한 염원과 생각을 추정하거나, 석탑건립에 관계했다고 여겨지는 雄營上人 및 그 관계자의 평화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는 일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즉 사료도 없는 수수께끼 덩어리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역사의 수수께끼를 푸는 즐거움과 추리의 재미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지역교재라는 점에서, 개개인이 과제테마를 정할 수 있으면 조사학습이 충분히 성립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테마결정이 대담한 추리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四圍石塔」이 제작된 시대적 배경 및 그에 관계했던 인물의 역사 또는 초기한글의 역사를 검토해봄으로써, 「선린우호와 평화」를 염원한 석탑을 재조명해볼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雄營上人이란 한사람의 승려를 통해 시대의 움직임 안에서 지역으로부터 일본과 동아시아의 교류 및 「선린우호와 평화」의 행동을 학습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4. 雄譽靈巖上人이란 어떤 인물인가?

연도	내용
1554	川氏일족인 沼津氏勝의 삼남으로 駿河国沼津(静岡県沼津市)에서 출생한다
1559	上総国生夷(千葉県千葉市)의 淨土宗大巖寺(住職道譽貞把上人)에 입문한다
1575	雄譽上人에게서 淨土宗의 교의를 전수 받는다
1588	大巖寺 3세 住職이 된다 (大巖寺는 德川家康의 관동입국시부터의 祈願寺로서 檀林이라고 불려지는 승려양성을 위한 중요한 학문의 장이었다)
1590	大巖寺의 住職을 그만두고 수행을 위해 奈良에 靈巖寺를 건설한다 (여기를 거점으로 3년간 淨土宗의 포교에 힘쓰는데 이때 「조선침략」으로 납치되어온 조선인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다)
1593	德川家康로부터 다시 大巖院의 住職이 되어줄 것을 설득 당해 관동에 돌아온다
1598	京都伏見城에서 豊臣秀吉가 死去한다 (家康과 前田利家등은 조선으로부터의 첩보를 지시한다)
1600	家康는 大西行長에게 조선과의 강화를 명하고 그사이에 포로160명을 송환한다(이 무렵 「増上寺史料集」에 의하면, 雄譽上人은 増上寺에 있는 德川家の 法事の 자리에서 논쟁을 하고 결국 淨土宗의 교의를 파괴했다는 대가로 大巖寺로부터 추방당하여 그 후 安房國大網에 은거하여 작은 절을 지었다고 한다)
1603	館山の 大網村에 大巖院을 창설한다 (安房國主里見義康의 寄進에 의해, 정식명은 佛法山大綱寺大巖院이라고 하며 京都知恩院의 末寺로서 승려양성소도 병설했다)
1607	雄譽는 守永寺를 시작하여 房總의 각지에 다수의 사원을 창설한다 (이해 5월에 제1회 慶長度朝鮮回答兼刷遣使 467명이 방일하여, 1418명의 조선인被虜人을 데리고 귀국한다)
1609	安房國主里見義康가 귀의하여 大巖院에 42석의 朱印이 부여된다. 上総國佐貫城主인 内藤政長으로부터 善昌寺住職을 맡을 것을 간청받아 大巖院은 제자의 靈譽에 맡기고 安房을 떠난다
1614	里見忠義가 伯耆國倉吉(鳥取縣倉吉市)에 改易한다. 雄譽上人은 法然의 奇蹟을 參拜하여 西國行脚을 위해 여정에 나선다 (각지에서 사원을 창설하고 재건하는 시기로, 제2회 元和3년도 朝鮮回答兼刷遣使가 방일하였고 이때 雄譽가 그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다. 서국행각 도중에는 伯耆國에 改易한 里見忠義가 찾아왔다)
1619	雄譽, 서국행각을 마치고 上総國佐貫에 도착한다 (서국행각에서는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서일본각지에 30여개의 절을 창설 또는 재흥하는데 관여했으며 서민들 앞에서 淨土宗포교를 할 것을 강력히 권장했다)
1621	江戸茅場町에 草庵을 만드는데, 德川水軍의 長인 向井忠勝으로부터 沼地를 받아 그곳을 막아 땅을 조성하여 淨土宗의 檀林으로서 江戸의 靈巖寺건설을 시작한다
1624	大巖院에서 山村茂兵夫妻가 逆修를 위한 석탑, 즉 「元和十年三月十四日」이라고 刻字한 「四面石塔」을 건립한다 (이해 12월에 제3회 寛永元年度朝鮮回答兼刷遣使이 일본을 방문하였고 이때 江戸靈巖寺이 조선통신사에 관계했을 가능성이 있다)
1629	靈巖寺의 모든 일이 완성되어 佐貫의 勝隆寺로부터 本尊을 옮긴다. 雄譽上人은 幕府로부터 淨土宗總本山인 知恩院의 제32대 住職으로 임명된다
1633	知恩院가 큰화재로 불타 德川家光로부터 재건 명령을 받는다 (大梵鐘鑄造發願을 시작해 門末寺院으로의 勸進帳과 幕財를 추진한다)
1636	知恩院의 大梵鐘이 완성된다 (이해 제4회 寛永十三年度 조선통신사가 방일한다. 후에 雄譽上人전기에 의하면 이시기의 통신사가 日光參拜에서 돌아가는 길에 大巖院을 방문했다고 기재되어있다)
1641	知恩院의 모든 일이 완성되고 그 落堂法要가 행해진 후 설법을 위해 江戸에 돌아온 88세의 雄譽上人은 江戸의 靈巖寺에서 死去한다

5. 수업의 흐름

(1) 「四面石塔」으로부터 테마를 설정하고 조사한다

수업 둘째 시간에 프린트에 있는 「四面石塔」을 보고 각자가 생각한 것을 자유롭게 쓰도록 하였다. 프린트의 질문내용은 「오른쪽의 사면석탑에 새겨져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 내용뿐입니다. 그 새겨져 있는 내용으로부터 어떤 것을 알 수 있는지? 자기 나름대로 그 사실 또는 추정한 것을 써보세요.」

전 학급 약160명이 생각한 것을 6개로 나누어 요약하여 보았다.

a. 언제 만들었는가?

「元和10년」이라고 생각한다

「元和10년」이란 사람이 죽은 해인가? 그 답을 만든 해인가?

b. 어디에 있는가?

「房州山下大網村大巖院」

c. 누가 만들었는가?

「寄進」이라고 써있으니까 「山村茂兵」이란 사람이 세웠다.

「大巖院檀蓮社雄營」가 만들었을까?

「南無阿弥陀仏」이라고 써있으니까 불교도가 만들었다

「大巖院檀蓮社雄營」의 이름이 있다

「建營超西信士」「榮壽信女」라고 써있다

里見家の 신앙과 외교에 관계한 사람일지도?

d. 왜 거기에 있는가?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령한 碑

「南無阿弥陀仏」이라고 부처님을 모신 무덤으로 한일교류를 깊이 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염원하여 만들었다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

e. 여러 가지 추정

각각의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째서 사면에 새겼는가?

문자의 내용은 모두 같지 않은가?

「죄를 모두 면한다」라고 쓰여져 있으므로 모든 죄를 면해준다

「寄進水向」이라고 써있으므로 물에 관계된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죽어서 합동으로 무덤을 세웠다

「逆修」가 관계 있는가?

「죄를 모두 면한다」라고 써있으므로 죄를 지은 사람의 석탑

한국과 중국에서부터 「南無阿弥陀仏」이 房總에 전해져 여기로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방향에 따라 문자를 다르게 하고 있다

f. 돌의 사면에 있는 문자

동면의 문자: 한글과 비슷하다

문자는 한글이다

갑골문자이다

남면의 문자: 한자이지 않은가?

서면의 문자: 한자에 가깝다

한자가 되기 전의 문자와 비슷하다

「金印」의 문자와 비슷하다

서면과 남면의 글자가 비슷하니까 같은 내용인가?

북면의 문자: 무덤 뒤에 서있는 나무에 쓰여져 있는 글자가 비슷하다

梵字인가?

석탑의 상부에 있는 문자: 북면의 문자와 같은 문자인가?

서면 모두가 같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여러 가지로 「四面石塔」의 양태를 추정하고 있는데, 서면의 하나가 한자로 「南無阿彌陀仏」라고 새겨져 있기 때문에 역시 불교에 관한 무덤이라든가 위령을 위한 석탑이란 답이 많았다. 학생들이 중학교 역사학습에서 주변에 있는 불교에 관한 역사 및 문화 등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가, 일반적으로 불교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각 학생들의 추정은 곧 프린트로 정리해 다음시간에 「학급전원의 의견『수수께끼 사면석탑을 이렇게 본다』」를 전달했다. 수업에서는 특징이 있는 추정내용을 학생들 스스로 발표하도록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에 관해 다른 학생들에게 의견 및 감상을 말하도록 한 후, 자신과 다른 추정 사항을 앞으로의 조사학습에서 참고로 하도록 지시했다.

네 번째 시간부터는 도서실에서 「조사학습」에 들어갔다. 프린트 「四面石塔의 수수께끼 -테마를 정한다」를 배포하고, 각자가 자기 과제테마를 생각하도록 우선 3시간에 걸쳐 전체가 공동조사연구를 하게 했다. 그 조사연구내용을 보면, 하나는 연표작성으로 「四面石塔이 건립된 시대연표를 만든다」이고, 두 번째로는 불교관계의 기본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불교 및 시대의 역사사항을 조사한다」로 정했다. 그리고 조사연구가 끝난 뒤 이 두장의 프린트를 제출하게 했다. 조사학습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도 꽤 있었으며, 적어도 도서실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알기 쉽게 쓰여진 교과서나 자료집으로부터 프린트를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해야만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생들이 작성한 프린트는 임시로 제출하게 하여 불충분한 부분을 체크해 주었다.

일곱째 시간에는, HR교실에 돌아와 지금까지의 프린트 제출상황을 확인하면서 과제테마 프린트를 배포하여 학생들이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했다. 이때 이제부터의 3시간은 각자 도서실에서 과제테마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를 위한 참고문헌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해주었다.

여덟째 시간부터는, 효율적인 조사학습을 위해 과제테마의 설정과 조사사항의 검토 및 참고문헌의 확인에 들어갔다.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5년전에 작성한 VTR 「한글사면석탑의 수수께끼」를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화면을 통해 「사면석탑」의 크기와 劃字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추정해온 일부사실에 해답을 찾기도 했다. 시청후 「사면석탑」의 수수께끼에 대해 나 자신이 어떻게 추정하고 있는가를 간단히 소개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추정 및 학급모두가 추정한 의견을 참고로 테마를 결정하고, 그에 비추어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학습을 통해 과제탐구를 하여 그것을 소논문으로 정리해 내도록 지시했다.

(2) 소논문의 분석(160명분)

소논문 중에서 소테마로 한국·조선관계에 대해 쓴 비율을 조사했다.

		14HR	15HR	16HR	17HR
HR인원수		40명	40명	38명	42명
한국·조선관계를 쓴 비율		78%	80%	76%	76%
(a) 「사면석탑」 관계 (59명)	불교·雄髻·大巖院 한일교류·한글	17명 7	13명 9	12명 7	11명 6
(b) 「雄髻·大巖院」 관계 (46명)	雄髻의 생애·불교 한일교류·한글	7 1	11 2	9 3	18 3
(c) 「석탑의 刻字」 관계 (18명)	불교·梵字 한글	0 1	0 11	2 7	7 8
(d) 「조선/한국」 관계 (22명)	秀吉의 조선침략 역사·문화·교류	16 7	9 1	7 5	6 9
(e) 「安房지역」 관계 (15명)	안방역사·里見氏·교류	3	7	9	0

6. 소논문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을 읽는다

(1) 사례: 鈴木重美의 경우

① 처음 추정할 주요 내용

元和十年三月十四일에 세워졌다

「南無阿彌陀仏」은 經에서 자주 듣는다

무덤에 새겨져 있는 것은 문자인 듯하다

각방면에 쓰여져 있는 것은 그 면에 따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② 조사테마 「왜 사면이 다른 문자인가?」

일본과 각각의 나라는 어떤 교류가 있었는가?

석탑이 만들어졌을 당시의 각 나라의 사건은?

③ 소논문 제목 「왜 사면이 다른 문자인가?」

<머리말>

나는 千葉県館山市의 淨土宗大巖院에 있는千葉県 지정유형문화재 「사면석탑」에 대해 알고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각각의 면에 쓰여진 문자의 나라들과 일본과의 관계 및 교류를 알고 싶어 조사해보기로 했다. 우선 각각의 문자에 대해 알아보고 일본과 관계가 깊은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다. 그 다음으로 석탑에 새겨져있는 「南無 阿彌陀仏」이 어떤 의미이며 왜 그런 문자인가에 대해 조사해보기로 했다.

1. 문자에 관하여

우선 각각의 문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문자의 나라들과 일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부면의 문자는 「悉曇」이라고 한다. 悉曇이란 산스크리트어의 Siddham의 약어로 산스크리트의 문자를 悉曇이라고 칭한다. 일반적으로는 산스크리트문자, 전문적으로는 悉曇이라고 분류해서 쓰고 있다.

悉曇학이란 것은 중국과 일본에 있어서는 산스크리트문자에서 사용된 문자 및 음성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일본어와 산스크리트어 사이에는 古來중국을 통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南無阿彌陀仏」라는 제목도 본래 산스크리트에서 유래하고 있다.

다음으로 서면 문자의 경우, 한자가 되기 전의 문자로 篆字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사용되는 한자는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남면의 문자도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이다. 그리고 동면의 문자는 조선의 문자로 「한글」이라고 한다. 이 한글은 이씨조선 제4대 왕세종이 1446년에 공포한 「훈민정음」이란 문자로 쓰여져 있다. 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글의 원형인 옛문자로 단기간에 소멸했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최근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문자라고 한다. 이렇게 각각의 문자를 통해 중국이나 조선과 어떤 관계가 있음을 알았다.

2. 「南無阿彌陀仏」에 관해서

사면에 새겨져 있는 문자를 해독한 결과, 모두가 「南無阿彌陀仏」이란 문자임을 알았다. 이는 절 등에서 많이 귀에 들게되는 언어이기도 하였기에 좀더 자세히 조사해보았다.

「南無阿彌陀仏」이란 문자는 「阿彌陀仏」에 귀의함을 의미하며, 중국당대의 高僧善導의 해석에 의하면 「南無」란 귀의를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로 부처에 귀의해서 구원을 구하고자 하는 민중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는 阿彌陀仏의 행동을 나타낸다고 한다.

「南無阿彌陀仏」을 통해 민중의 염원과 부처의 행동이 하나가 되면 평화로운 극락정토에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생명의 위기나 죽음에 처한 경우에 「南無阿彌陀仏」라고 하면 모두가 부처가 되어 극락정토에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고 한다.

3. 일본과 조선과의 교류.... 「조선통신사」를 살펴본다

조사하는 가운데 일본과 조선이 다양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더 조사를 해 가는 과정에서 豐臣秀吉의 「조선침략」이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되었다. 1592년부터 96년의 秀吉의 「조선침략」은 조선사람들의 마음에 일본인에 대한 증오심을 남겼다. 그러나 江戸시대에 들어서 封馬藩 및 幕府의 대응에 의해 우호관계가 회복된다. 그리고 이는 조선통신사의 방일이란 형태로 실현되었다.

이 조선통신사라는 것은 조선국왕이 일본국왕(장군)에게 국서를 전하기 위해 파견한 사절을 말한다. 시작은 1404년에 足利義滿이 조선과 대등한 외교관계를 맺어 쌍방이 국서를 교환한데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양국사절의 우호적 왕래는 1592년부터의 조선침략(文祿의役)과 1597년의 조선계침략(慶長の役)이란 일방적인 침략전쟁으로 붕괴되고 말았다.

江戸막부는 이러한 침략전쟁 후 우호관계를 수복해가기 위해서는 江戸시대에 조선통신사를 조병하기로 결정했다. 통신사는 1607년부터 1624년까지의 국교회복·전후처리를 위한 사절 3회와, 1636년부터 1811년까지의 장군교체시의 사절 9회로 총12회 방일하였다.

처음 3회는 일본으로부터의 사절에 대한 답례 사절로 回答兼副選使라고 하며, 답례를 겸해서 秀吉의 「조선침략」시에 일본에 연행되어온 많은 조선인 포로 반송을 목적으로 하였다. 포로에는 도공이나 학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들이 江戸시대초기의 기술 및 학문발전에 기여한 역할은 매우 큰 것이었다. 이 답례를 위한 사절이 파견된 배경에는 오랫동안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교역을 통해 문화교류를 계속해온 封馬藩의 역할이 컸다.

또 기록에 의하면 통신사가 도중에 들린 곳에는 일본지식인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았다고 한다. 이는 당시 일본에게 있어 유학선진국인 조선으로부터 배우고자하는 의식이 높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통신사를 통해 江戸시대에는 조선의 문화가 전해졌으며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리>

이 석탑에 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문이 생겨나면서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는 기분이었다.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자료도 물론 적은 것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자세히 조사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꽤 시간이 걸렸다.

내 테마인 이 석탑에 새겨진 4개의 문자는 각기 산스크리트(悉曇)·篆字·한자·한글이란 점을 알게되었는데, 이 속에서도 한글문자가 일본과 관계가 가장 깊다는 점을 느껴 특히 한글과 조선과의 교류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16세기말의 秀吉의 「조선침략」이 관계되어 있는 듯이 생각되었는데, 이점이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료가 적어 잘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조사해 가는 가운데서 중요한 관계가 있는 사건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南無阿彌陀仏」이란 문자는 부처에 귀의해서 구원을 구하고자하는 민중의 열원과 부처의 행동이 하나가 되어 평화로운 극락정토에서 부처가 되는 것이며, 이는 「南無阿彌陀仏」을 함축하는 의미라는 것도 알았다. 이 말이 만약 秀吉의 「조선침략」과 관계가 있다면 석탑은 일본과 조선과의 우호 및 평화에 대한 열원을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나는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다. 사면석탑을 통해서 일본과 조선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학습해왔는데, 테마를 정해 조사하는 가운데 특히 양국에는 우호 및 교류의 깊은 역사가 있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④ 鈴木의 수업후 감상

이 석탑에 관해 많은 의문이 생겨났지만 자료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테마를 정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더구나 테마를 정하기는 했어도 자료 찾기에 시간을 다 소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지만 조금씩 자료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게 되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조사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되는 수업방법은 매우 훌륭한 「학습법」이란 생각이 들었다. 즉 내 테마 「왜 사면이 다른 문자인가?」란 것을 조사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이 석탑이 조선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한일(조일)의 우호 및 교류가 사면석탑에도 관계되고 있음을 알게되었던 것이다. 테마에 관해 조사해가며 점점 내용이 조선과의 관계로 이어졌고, 최종적으로는 우호관계 등 지금까지 자세히 알지 못했던 점을 사면석탑을 통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2) 학생들의 수업감상과 학습 분석

鈴木는 정리에서 「이 석탑에 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문이 생겨나면서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는 기분이었다」라고 배우는 즐거움을 인상적으로 적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조사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조금씩 알게되는 기쁨도 있어 재미있었다. 이런 수업도 좋다」라든가, 「스스로 조사해서 의문을 갖게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내 나름대로 결과를 얻게되었기 때문에 달성감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쓰고 있다. 특히 「조사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되었고...연이어 조사해 보고싶은 것과 의문이 생겨났기 때문에 점점 아주 재미있어졌다」라든가, 「의문으로 생각한 부분을 조사해 가면 갈수록 의문

이 더 생겨나는 것이 조사학습의 재미있는 부분」이란 등의 학생들의 감상으로부터, 주체적인 학습스타일을 확립해 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하게 느꼈다. 특히 조사학습에 들어가기 전과 후의 학습에 있어 자신들이 배우는 자세가 바뀌었다는 감상이 두드러졌던 점도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해주었다.

평소 학생들 스스로 학습하는 과제를 설정하도록 하여 그 과제탐구 및 해결을 위한 학습방법을 가르치는 일은 거의 없다. 鈴木가 이 수업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조사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되는 수업방법은 매우 훌륭한 학습법」이라고 느끼게 된 것은 커다란 수확이었다. 또 어떤 학생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문에 부딪혀 정신 없이 조사했다. 여러 가지 것을 아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기에 매우 좋았다」고 하는 등, 본인으로서의 수업전개를 통해 배움의 의미 및 방법 등을 확인하는 학생들이 있었음을 앞으로도 소중히 하고자 한다.

그런데 鈴木은 스타트시점에서 사면석탑을 보고 「면마다 써있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걸까?」라고 추정했는데, 자료가 적은 가운데 구체적으로 테마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는 「일본과 각각의 나라는 어떤 교류가 있었던가?」라는 과제로 가져왔다. 그리고 조사학습에서는 일본과 조선의 교류형태를 석탑이 만들어진 시대의 사건 즉 「조선풍신사」의 역사를 통해 찾아갔다.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여러 가지 수수께끼가 생겨났다. 그리고 좀더 여러 가지 것을 학습해서 수수께끼를 풀어가고」 싶었다고 한 학생도 있었으나, 조사해 가는 가운데 「내 테마의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불안해하거나, 「판단할 자료가 적다고 하기 전에 나 스스로가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음을 통감」하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쓴 학생들도 있었다. 그런 면에서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어 가는 식의 과제학습은 학생들이 테마탐구 자세를 스스로 발견하고 인식을 심화해 가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鈴木은 「『南無阿彌陀仏』에 관하여 그것이 어떤 의미이며 왜 그런 문자인가?」라는 과제를 탐구하는 가운데, 「일본과 조선 등이 阿彌陀仏의 힘으로 모두가 우호적으로 행복하게 될 것을 염원해서 『南無阿彌陀仏』라고 새겼던 게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석탑은 일본과 조선과의 우호 및 평화의 염원을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가설을 세웠다.

한일 역사 및 교류관계를 과제로 한 학생들 중에는 「...수수께끼가 생겨나게 하는 석탑이다. 이것을 계기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존재를 알리고 한일교류를 확대해가져 않으면 안되겠다」라든가, 「우리들이 이번에 한 것과 같은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며 「사면석탑은 이제부터 일본과 한국·조선과의 관계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쓰는 등, 몇 시간의 짧은 조사학습을 통해 깊어진 역사인식이기는 하지만 학생들 나름대로 한일교류에 대한 계연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관하여 학생들은 어떤 인식을 했는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그저 시골마을로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관하여 아는 게 없으며 알려는 기본도 느끼지 못해왔다」는 점을 솔직하게 쓴 학생들도 있었다. 또 「지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절감하면서 그래도 安房에도 매우 훌륭한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쓰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번 수업은 학생들에게 지금 살고있는 지역을 재확인시켜주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끝으로 내년도부터의 본인의 역사수업에서는, 사회과 학습을 진행해 가는데 있어 가까이 있는 지역을 새롭게 바라보는 겸허한 자세가 국제화에 걸맞는 역사적 인식 토대가 된다는 점과 지역인식을 심화해 가는 것이 일본 역사를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수업실천과제에 설정해서 진행해갈 것임을 밝히는다.